

서울 밤거리 오색빛 탄성



모전교에서 바라본 청계천 광장. Mariano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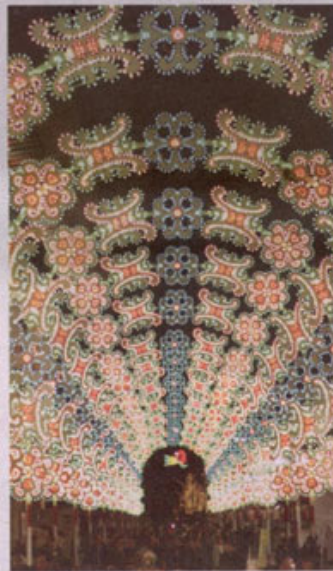


청계광장에서 아래로 내려본 모습. Mariano Light

■ '하이서울 루미나리에' 점등식

겨울한파를 녹일 따뜻한 불빛이 서울 시내에 쏟아진다. 15일 오후 5시30분 '2005 하이서울 우리 이웃 루미나리에'가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말까지 매일 오후 6~11시 불을 밝힌다.

서울 시청앞 광장부터 청계광장-광통교 구간, 세종문화회관 주변, 광화문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200만개 이상의 전구가 빛을 내뿜는다. 최근 컬러 변환 조명을 설치한 세종로 중앙 녹지대의 나무와 예전보다 밝아진 이순신 장군 동상 등과 어울려 그야말로 '빛의 거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관람은 무료.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광화문역(5호선)과 가깝다. 점등식에 앞서 루미나리에의 화려한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정세영-이효규기자 (사진집:phtthink@inn.co.kr)



세종문화회관 앞 빛의 축제. Mariano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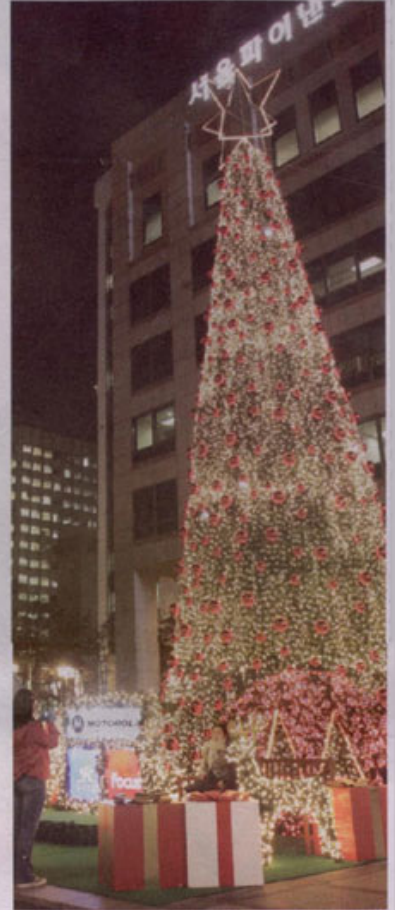
■ 여기가 '빛의 거리'

▶ **시청 앞 광장**=점등과 동시에 구세군 50인조 악대와 합창단이 일제히 크리스마스캐럴을 연주하고 가수 김현철이 축하곡을 들려준다. 별빛같은 푸른색 전구 수십만 개가 빼곡히 박힌 '하늘 거울' 조형물이 볼거리.

▶ **파이낸스센터-청계 광장-광통교**=시청에서 광화문쪽으로 걸어오면 파이낸스센터 앞에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와 빛나고 있다. 청계 광장과 광통교 그리고 이를 잇는 청계천변이 모두 빛으로 장식됐다.

▶ **세종문화회관 앞**= '아름다운 시절'을 컨셉트로 한 조명 터널이 길을 따라 늘어섰다. 화려한 사진을 찍기 위한 명소.

▶ **도로원표**= '광화문 월드컵 광장'으로 알려진 이곳의 정자도 화려하게 꾸몄다.



"사랑을 전해요" 국내 최대 무료종합일간지 포커스신문의 모토로라가 공동 제작한 높이 12m짜리 '사랑을 전하는 모토로라 크리스마스트리'. 포커스신문이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에 세워진 트리 주변에선 가족, 연인들을 위한 풍성한 무료경품행사와 사랑을 울려 퍼지게 하는 연주회가 열린다.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Mariano Light

